

“이번엔 수원 사냥” ... 전남 ‘무실점 4연승’ 도전

오늘 5년 7개월만에 수원과 격돌 탄탄한 수비력으로 1위 탈환 노려

상승세를 탄 전남드래곤즈가 5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수원삼성과의 대결에서 4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10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가 수원을 상대로 K리그2 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두 팀의 맞대결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전남은 2018시즌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창단 24년 만에 강등 운명을 맞았다. 전남이 1부 승격 꿈을 이루지 못한 사이 수원은 지난 시즌 최하위로 자동 강등되면서 두 팀이 K리그2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통산 전적은 수원이 33승 17무 21패로 앞섰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2승 3패로 전남이 열세지만 마지막 대결이 펼쳐졌던 2018년 8월 19일 경기에서는 전남이 6-4 승리를 거뒀다. 최근 분위기도 전남이 앞선다. 전남은 지난 7일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 28분 터진 김종민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김포FC와의 홈경기 4-0 승리에 이어 천안시티FC전 1-0 승리까지 3연승 질주다. 무엇보다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었다. 올 시즌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전남은 단 한 골만 허용하는 철벽 수비를 과시하면서 2위에 랭크됐다. 수원의 분위기도 좋다. 염기훈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지난 5라운드 충북청주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 나온 김현의 골로 극적인 1-0 승리를 만들었다.

승점 3점을 더한 수원은 전남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4경기를 치른 전남과 5경기를 소화한 수원은 나란히 ‘승점 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이 6득점 1실점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수원은 5득점 4실점 중이다. 전남은 양형모 골키퍼를 주축으로 한호강, 조운성이 지키는 수비라인을 뚫고 다시 만난 수원을 상대로 4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3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종민을 앞세워 수원을 공략하고, K리그2 선방율 1위(90%)를 자랑하는 최봉진의 활약으로 달라진 수비를 보여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다. 전남이 다시 한번 무실점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부산전 승리로 전남에서 3명이 K리그2 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시즌 3호골이자 결승골을 장식한 김종민과 코너킥 상황에서 좋은 크로스로 김종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 준 발디베아가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클리스티’를 합작한 수비수 유지하도 5라운드 MVP는 천안 모파에게 돌아갔다. 모파는 지난 7일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44분 다이빙 헤더로 동점골을 기록한 뒤 후반 28분 다시 한번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 멀티골을 장식했다. 이날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전남드래곤즈가 10일 수원삼성의 안방에서 4연승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7일 부산 원정에서 전남 김종민이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전남드래곤즈 제공>

‘최고의 메이저’ 마스터스 ‘그린 재킷’ 주인공은?

내일 람·매길로이·우즈 등 출동 PGA vs LIV 자존심 대결 주목 임성재·김주형·김시우 등도 출전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555야드)에서 개막한다. 1934년 창설돼 올해로 88회째인 마스터스는 4대 메이저 가운데 대회 역사는 가장 짧지만, 선수 대부분이 ‘최고의 메이저’로 인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4대 메이저 가운데 유일하게 같은 코스에서 매년 대회가 열리고, 총상금 규모는 대회 기간에 확정된다. 2022년 1500만 달러, 지난해 1800만 달러였다. 출전 선수 수도 4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적어 올해 대회의 경우 89명이 우승에 도전한다. ‘디펜딩 챔피언’ 은 람(스페인)은 지난해 우승할 때만 해도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주는 ‘그린 재킷’을 LIV 골프에 내줄 뻔한 위기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구해낸 ‘랍보’로 칭송받았다. 당시 3라운드까지 LIV 소속 브룩스 켈퍼(미국)가 2타 차 선두를 달리며 LIV 소속 선수 최초의 메이저 우승에 도전했으나 4라운드에서 람이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람은 지난해 말 PGA 투어를 떠나 LIV로 이적, 올해는 LIV 소속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대회 2연패는 2002년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우즈가 올해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하면 마스터스 24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세운다. 우즈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4대 메이저 가운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시우, 임성재, 세플러, 우즈, 람.

데 마스터스 우승만 없어 대회 정상에 오를 경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매길로이의 마스터스 최고 성적은 2022년 준우승이다. 남자 골프 ‘커리어 그랜드 슬램’ 최근 사례는 2000년 우즈다. 이 대회는 올해 첫 메이저이기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PGA 투어와 LIV 선수들이 한 대회에서 실력을 겨루는 ‘자존심 대결’의 장이기도 하다. 올해 출전 선수 89명 가운데 LIV 소속은 12명이다. 지난해 우승자 람, 지난해 공동 2위였던 켈퍼와 필 미켈슨(미국)이 모두 LIV 소속이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주형, 김시우, 안병훈 4명이 출전한다. 교포 선수로는 이민우(호주)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의 마스터스 역대 최고 성적은 2020년 임성재의 공동 2위다. 작년에는 임성재와 김주형이 나란히 공동 16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코스는 지난해보다 전장이 10야드 늘어 7555야드로 세팅됐다. 2번 홀(파5)이 지난해 575야드에서 올해 585야드로 길어져 역대 마스터스 사상 가장 코스가 됐다. /연합뉴스

‘KPGA 개막전’ DB 프로미 오픈 11일 개막

22개 대회 총상금 181억5000만원

2024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오는 11일 DB순해보험 프로미 오픈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올해 KPGA 투어는 22개 대회가 확정됐으며, KPGA 투어 챔피언십을 마지막으로 11월 10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전체 대회 총상금은 현재 181억5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회의 상금이 추가되면 최대 25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시즌 개막을 알리는 DB 프로미 오픈은 11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울드코스(파71·7181야드)에서 총상금 7억원,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걸고 열린다. 개막전에는 작년 대회 우승자이자 다승왕인 고군택을 비롯해 작년 상금왕 박상현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고군택은 작년 대회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한 것으로 시작으로 아너스 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신한동해오픈을 제패하며 3승을 올렸다. 고군택은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거둔 대회이고 시즌 개막전이기 때문에 애정이 깊은 대

회”라며 “경기 감각과 체력 모두 끌어올려 타이틀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투어 데뷔 20년 차가 된 박상현은 “이렇게까지 투어에서 오래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도 “이제는 20승 이상 쌓아야 받을 수 있는 ‘영구 시드권’이 목표”라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박상현은 KPGA 투어 통산 12승을 올렸다. 다만 박상현은 개막전을 앞두고 발목을 접질려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다. 아시안투어에서 통산 7승을 거둔 재즈 켈타타(태국)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한국투어 활동을 선언했다. 2019년 한국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KPGA 투어 출전권을 받은 그는 “올해 한국에서 최소 15개 대회 또는 최대 20개 대회까지 출전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군산CC 오픈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장유빈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프로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군 복무를 마친 이창우, 서형석, 박정환도 KPGA 투어에 복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다만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을 받은 함정우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 일정 때문에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남부대, KOREA OPEN 줄넘기대회서 메달 5개 획득

남부대 스포츠레저학과가 2024 KOREA OPEN 줄넘기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부대 김민준이 지난 5·6일 경기도 포천 대진대 체육관에서 열린 2024 KOREA OPEN 줄넘기대회에서 일반부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민준은 일반부 30초 스피드와 3

분 뛰기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김민준은 이민영, 임현준과 함께 출전한 4인 쌍줄 스피드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스터부 프리스타일에 출전한 이민영도 3위에 오르는 등 남부대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공무맨4
- 2관 뎀글부대
- 3관 공무맨4,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어게인 1997
- 4관 공무맨4, 파묘
- 5관 파묘
- 6관 공무맨4
- 9관 오멘: 저주의 시작, 비키퍼,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 7관 싸이커블 [보석특가]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오멘: 저주의 시작, 1980, 어게인 1997
- 8관 싸이커블 뎀글부대, 골드핑거, 님은 인생 10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